

Speaking in Parables—“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따로**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막 4:33-34).

8. 담화 I: 비유 (4 장)—씨앗, 말씀, 신학하기

- ◆ 지금까지 줄거리—예수의 가르침과 삶에 대한 세상의 반응 (놀람, 무시, 경계)
- ◆ 이에 대한 총괄적 이해를 비유로 나타냄—왜? 들길까봐 (James Scott,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s*)

씨뿌리는 비유

- 씨=말씀 (4:14,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 비유의 목적: 듣는 이들이 깨닫지 못하게 (Q. 너무 심한 거 아냐? << 사 6:9-10, 성서다시읽기)
- 그러나 내부인에게는 설명; 4:34 => 문제는, 제자들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막 4:12; 6:52; 8:17, 21) (cf. 7:14)
 -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4:12)
 -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6:52)
 -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나”(8:17);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8:21)

1. 씨뿌리는 비유를 이해함이 모든 비유 이해의 기초 (막 4:13). 예수는 비유 외에는 말씀치 않음(4:34; cf. 3:23; 7:17; 12:1) => 곧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의 비유/말씀을 깨닫지 못함.

- 길 가에 떨어진 씨 (4 절=>15): 사탄의 밥=>지배신학의 노예 (e.g., 근본주의 신앙)=>비창조적, 살생적(殺生的) 신앙
- 들밭에 떨어진 씨(5-6 절=>16-17 절)=> 호기심으로 잠깐 관심을 보이다가, 자신의 신학/신앙이 없는고로[스스로 설 수 있는 뿌리가 없음으로], 지배신학의 핏박을 이기지 못함.
-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7 절=>18-19 절)=> 물질 만능주의를 벗어나지 못함 (나름대로 신학은 있지만, 삶이 뒤따라 주지 못함=> "자유주의 신학"?)
 - 신학과 신앙, 혹은 믿음과 생활의 불일치 (양 다리 걸치기; 두 개의 신학노선).
 -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ἀπάτη, deception), 기타 욕심 (ἐπιθυμία, desire, lust)=> 야 1:15
 - 위에 열거된 것 중 내게 해당하는 사항은?
-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8 절=>20 절)=> 신학과 신앙 혹은 믿음과 생활의 일치, 일관성.
 - 삶의 변화, 이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 말씀/신학을 따르게 만듦.
 - 씨들(복수형)=>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미칠—그래서 그 결실이 있을 것을 암시
 - 가장 좋은 예=>두 번의 떡 나눔 사건 (6:30-44; 8:1-10); 집,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를 백배나? (10:30)=> 창조적, 양생적(養生的) 신앙

2. 이사야 6:9-10 과 깨닫지 못함 (비유의 목적, Scott)=> [표면적으로는] 외부인=> 문제는 열 두 (제자/사도, 8:17), 이것이 초점. 마가복음의 중심점, 출발점

- “열 두 (제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οἱ περὶ αὐτὸν σὺν τοῖς δώδεκα; those who were around him with the twelve).
 - Who asked? 1) 열 둘(사도)과 사람들(x); 2) 사람들과 열 두 (사도)들(silent); 3) 사람들(o).
 - “함께한 사람들이 열 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개역한글); 예수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표준새번역);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열 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공동번역); the Twelve and the others around him asked him about the parables (NIV)=> [Translation is an act of interpretation]
- 예수의 시간대(historical world--30년대)과 독자의 시간대(narrative world--70년대)와 차이. 관심은 당시/현재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열 두 제자/사도와 구별됨=> 소위 열 두

제자/사도들(핵심멤버, Jerusalem-based church)은 깨닫지 못했지만, 마가공동체(우리는) 예수의 참 뜻을 알고 따른다. (오늘날에 맞는 신학, 살아 있는 신학=> 신학 다시하기)

- 막 4:12<<사 6:9-10 (“be healed” in MT/LXX ⇨ “it may be forgiven”) => What? Isaiah to “this people” (not general audience) => MT, “Make the mind of this people dull” (imperative); LXX, “The mind of this people became dull” (indicative)
 - MT: And he said, "Go, and say to this people: 'Hear and hear, but do not understand; see and see, but do not perceive.' Make the heart of this people fat, and their ears heavy, and shut their eyes; lest they see with their eyes, and hear with their ears, and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and turn and be healed." (RSV) 주께서 이르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말아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하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와서 성혜지면 어찌 하겠느냐?" (공동번역)
 - LXX: You shall indeed hear but never understand, and you shall indeed see but never perceive. For this people's heart has grown dull, and their ears are heavy of hearing, and their eyes they have closed, lest they should perceive with their eyes, and hear with their ears, and understand with their heart, and turn for me to heal them.' 이사야가 일찌기,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 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 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만 앓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 고 말하지 않았느냐? (마 13: 14-15; 공동번역)
 - 막 4:11-12=>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 칠십인역과 마태복음에서는 도덕적 문제=> 그들의 문제, 고로 징계; 히브리성서와 마가복음에서는 정치적/신학적 문제 ("죄")=> 보다 중차대하다/discipline 을 넘어섬
- 막 3:29-30 성령과 더러운 영/귀신? (cf. 7:13 “사람의 유전,” “하느님의 계명”; 8:33 “사람의 일” “하느님의 일”; 11:30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3. “insiders” and “outsiders”

- 예수의 행적을 본 모든 사람들(3:7-12)이 모두 그를 따른 것은 아니다. 예수의 삶—기적과 병고침—은 그 가르침에 핵심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질병/환경의 변화를 꿈꾸고 찾아왔으나, 예수는 그 질병의 근원("죄")을 이야기했다.
- 밖(군중) 과 안(제자들)=> 집 안 (Mark's house-church setting). 소위 편집비평의 눈으로 살펴보면, 10 절부터 25 절의 말씀, 곧 청중이 "열 둘과 함께 예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로 제한된 말씀들은 나머지 1-9 절, 26 절-34 절과 대조가 됨을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1-9 절, 26 절-32 절에서는 바깥 세상의 일들이—밭에 씨뿌리기, 그리고 10 절-25 절에서는 집안의 용품들—등불, 침상, 등경—이 비유의 대상이다.
- insiders=> 제도 (교회/기독교, 베드로)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수의 신학을 살아내는 사람들 (삶의 모습, 신학하기, 무명의 제자들)
- 안과 밖을 모두 볼 수 있는 청중은? => (독자). 결국 독자/청중의 결단을 촉구함 ("갈릴리로 가라"=>16:7)

Reflections:

- ✓ 네 가지 신앙인의 모습/형태 중, 나는 어디에 속할까? (길 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 ✓ 참 신앙인으로 가는 길에 나를 막는 요인은? 이를 벗어나는 길은?
- ✓ "땅"=> 나/우리/신앙인이라고 이해할 때 [그렇지 않으면, 운명을 탓하리라. 씨앗은 똑같다. 같은 말씀이 다른 밭/마음에 떨어짐.], "좋은 땅"이 갖출 덕목은?

[다음은 그냥 참고하세요.]

| | |
|--|--------|
|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리포트 | 4:1-34 |
| I. 배경설정: Editorial Report—a large crowd beside the sea on the land | 1 |
| II. 비유의 말씀 | 2-32 |
| A. 씨뿌리는 비유—addressed to 많은 사람들 | 2-9 |
| 1. opening 리포트: 비유로 가르침 | 2 |
| 2. 예수의 말씀 | 3-8 |
| a. 상황설정: 씨뿌리는 비유 | 3 |
| b. 씨앗의 운명 | 4-8 |
| 1) 길가에 떨어진 씨: ὁ ἔπεσεν παρὰ τὴν ὁδόν | 4 |
| 2) 돌짜밭에 떨어진 씨: ἄλλο ἔπεσεν ἐπὶ τὸ πετρῶδες | 5-6 |
| 3)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 ἄλλο ἔπεσεν εἰς τὰς ἀκάνθας | 7 |
| 4)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 ἄλλα ἔπεσεν εἰς τὴν γῆν τὴν καλὴν | 8 |
| 3. closing 리포트 | 9 |
| a. report formula: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 9a |
| b. 말씀 자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 9b |
| B. 씨뿌리는 비유의 설명—addressed to 소수의 사람들 | 10-32 |
| 1. opening 리포트: "열두 제자와 함께 예수 주위에 둘러 있던 사람들"의 질문 | 10 |
| 2. 예수님의 비유설명과 또 다른 가르침 | 11-32 |
| a. 비유에 관하여 | 11-20 |
| 1) initial response: 비유의 원칙과 목적 | 11-12 |
| a) 원칙: insiders vs outsiders | 11 |
| b) 목적: 외인들이 깨닫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 12 |
| 2) 씨뿌리는 비유설명 | 13-20 |
| a) 전체적 해석: 씨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림 | 13-14 |
| b) 부분적 해석: 말씀을 듣는 자들의 종류 | 15-20 |
| (1)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οἱ παρὰ τὴν ὁδόν | 15 |
| (2)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οἱ ἐπὶ τὰ πετρῶδη σπειρόμενοι | 16-17 |
| (3)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οἱ εἰς τὰς ἀκάνθας σπειρόμενοι | 18-19 |
| (4)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οἱ ἐπὶ τὴν γῆν τὴν καλὴν σπαρέντες | 20 |
| b. additional parables | 21-32 |
| 1) concerning lamp: hiddenness and revelation | 21-25 |
| 2)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compared with | 26-32 |
| a) growing seed | 26-29 |
| b) mustard seed | 30-32 |
| II. Editorial closing 리포트: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설명 | 33-34 |

1. 1-34 절과 35-41 절은 모두 바닷가/바다를 배경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형식과 내용상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번째 리포트는 예수의 말씀에 관한 것으로 비유가 그 주된 관심사이다. 그 시작(2 절)과 끝(34 절)이 "비유"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일종의 literary inclusio 를 이룸을 본다. 두 번째 리포트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것으로 그의 권능이 주된 관심사이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4 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I. 예수의 가르침(1-34 절); II. 예수의 권능(35-41 절). 여기서는 첫번째만 다루고자 한다.
2. 1 절과 10 절은 각각 편집자의 배경설명/환경설정으로 시작한다. 이 후 32 절까지는 중단 없이 예수의 말씀이 계속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A. 씨뿌리는 비유; B. 비유의 설명
3. 본래 비유에서는 씨앗과 땅만 등장하지만, 그 해석에서는 씨앗(말씀)과 땅 이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된 관심사이다. 비유 속의 씨앗(σπέρμα)은 중성단수형이지만, 15 절 이하의 "이들(οἱ)"은 남성복수형, 곧 말씀을 듣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길가에 뿌려진 것들(남성형)이란"

문자적으로 씨앗도 아니고 씨앗이 떨어진 밭도 아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중성형)을 통해 우회적으로 가리키려고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4.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11 절, 13 절, 21 절, (24 절)에 나온다. 11 절과 21 절은 부정과거형(ἔλεγει)을 쓰고 있는 반면, 13 절은 현재형(λέγει)을 쓰고 있다.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볼 때, 11 절과 21 절은 동등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13 절은 11 절이하에 예속됨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 11-20 절은 한 단락으로 이해해야하며, 그 중 11 절-12 절은 "비유의 원칙/목적"을, 그리고 13 절-20 절은 "씨뿌리는 비유의 설명"이 된다.
5. 21-32 절은 이미 말한대로 11-20 절과 구조적으로 평행선을 이룬다. 따로 10 절과 같은상황설명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21 절은 10 절-32 절의 문단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26 절, 30 절은 단순히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읽고 있다. 이들 두 단위에서 간접목적어인 대상(personal pronoun)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들 말씀은 본래 대상이 불분명한 그룹에게 주어진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그럴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문맥상 21 절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함이 무난하다.

문제점.

1.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καὶ ἔλεγεν αὐτοῖς)라는 표현은 2 절, 11 절, 21 절, 24 절에만 나오는데, 1 절에서 많은 무리를 가리켜 "그들에게"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후에 등장하는 "그들"이란 군중들을 가리켜야 문맥상 논리적이다. 혹은 9 절, 26 절, 30 절에서 처럼, "그들"이란 말을 쓰지 않고 단순히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그 대상을 밝혔으므로.)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11 절에서 24 절 사이에 있는 "그들"이란 일반 군중들이 아니라, 단지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 곧 "열두 제자와 함께 예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10 절)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2. 소위 편집비평의 눈으로 살펴보면, 10 절부터 25 절의 말씀, 곧 청중이 "열두 제자와 함께 예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로 제한된 말씀들은 나머지 1-9 절, 26 절-34 절과 대조가 됨을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1-9 절, 26 절-32 절에서는 바깥 세상의 일들—밭에 씨뿌리기—이, 그리고 10 절-25 절에서는 집안의 용품들—등불, 침상, 등경—이 비유의 대상이다.
3. 34 절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고 기록하는데, 10 절-24 절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10 절에서 "열두 제자와 함께 예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을 "매우 큰 무리"(1 절)로부터 분리해 따로 취급하고 있다.
4. 간단히 말해, 구조상 21 절-32 절은 소수 그룹들에게 전해진 말씀으로 구분되어지나, 1 절의 "비유들"의 복수형은 이들 additional parables 가 없이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교훈.

1. 편집비평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이란, 1 절-9 절, 26 절-34 절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오히려 현재의 모습은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부연설명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아마도 34 절에 있는대로 예수가 제자들에게 사석에서 가르쳤다는 생각이 10 절-25 절을 가능케 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열두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그 사후에야 깨닫고 예수를 전했다는 사실이 이 구절들에 신학적 배경으로 나타난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기록--마찬가지로,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즉 비밀/지식의 감추임/배교—은 나중에 온전한 깨달음과 예수운동에로의 참여라는 초기기독교 형성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하다. 이것이 22 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의 의미이다.
2. "열두 제자와 함께 예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란 표현에서 주어는 "예수 주위에 둘러 있던 사람들"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개의 story line 을 동시에 읽게 된다. 이미 살펴본대로 예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후에 만나 가르치게 될 사람들—곧 "예수 주위에 둘러 있던 사람들"로 묘사되는 마가복음 공동체—역시 처음에는 열두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했다는 초기기독교의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도 결국은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될 것으로, 마가공동체가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다.